

김정일 '대 전환 결단' 내렸다

남북연합 단계 진입 신호탄?

수시 정상회담, 총리·국방회담 수용 6자회담서 비핵화 조치에도 합의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가 이어지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제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의 고수와 구현'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한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 선언이라면 이번 '10·4선언'은 남북한이 전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간 합의처럼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한 차원 높인다는 것이 이번 선언에 담긴 정신이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특히 총리회담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위원회,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

을 열기로 합의했고 정상회담도 수시로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사실상 통일이 진행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관계가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선언은 2~3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측이 준비해간 제안들을 북한이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3일 오전 첫 회담에서 개혁·개방과 협력을 위한 남측의 제안에 "불신감을 피력했으나" 오후 회담에서 남측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6자회담에서 두 동틀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를 명시하지 않으면 연내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목록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 등 남측 방북단이 4일 오후 평양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시내를 떠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지 않은 채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북한의 달라진 모습에서 핵문제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적극 참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주도적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10·4 선언을 낳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김 위원장이 남측의 개최 제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가능했다.

여러 면에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한반도의 남북공존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공존관계를,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생존과 경제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2중,3중,4중의 안전보장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재 이러한 구상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협뉴스

“경협활성화 선결과제 포함” 환영

■ 재계 반응

경제계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화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이어서는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재계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경제협력 분야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일 뿐 아니라 '3통' 문제, 투자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선결과제로 거론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향후의 실질적인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경제계는 그러나 남북경협 활성화의 관건은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라며 실무차원의 논의가 이어져 대북 투자보장, 사업 수익성 확보, 기간시설(SOC) 확충 등 구체적인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2차 남북정

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남북경협과 관련한 합의된 다양한 실행적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 향후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의 발표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남북한간의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협뉴스

남북정상 외인잔 부딪치며 작별 인사

김위원장 “당뇨·심장병으로 아프지 않다”

■ 환송 오찬 이모저모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삼매인 건배로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문' 합의를 기뻐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노 대통령의 숙소인 평양시내 백화원 영빈관에서 각각 합의문에 서명한 뒤 동시에 합의문을 교환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남측 수행원 등 남북 인사들은 힘찬 박수로 합의문 채택을 축하했고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합의문을 교환한 뒤 서로 손을 맞잡고 10여 차례 힘찬 악수를 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 도중 “(남측 언론에서) 내가 마치 당뇨병에, 심장병까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직접 영접한 데 대한 노 대통령의 사의 표명에 “환자도 아니다”라고 유머를 구사, 자신의 견해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심장병 연구가 좀 약해서 사람들도 불러다가 (심장병) 연구도 시키고, 보완하고 있는데 잘못 보도들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보도들

을 하고 있다. 기자가 아니라 작가인 것 같다”고 말해 오찬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래도 (남측에서) 나에 대해 크게 보도하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문 서명 직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오찬에는 노 대통령 내외와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이 모두 초청됐다.

노 대통령의 원력에 얹은 김 위원장은 주빈석에 놓인 5병의 포도주 가운데 한 병을 직접 ‘환송주’로 골랐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시종 웃음을 보인 데 비해 김 위원장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종종 짝맞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근감을 보였다.

두 정상이 먼저 건배하자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환하게 웃으며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 건배한 뒤 노 대통령 내외와도 잔을 부딪히며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오전 시발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만남”과 “공존공영”을 거듭 강조했다. /공통취재단

■ 노대통령 방북 마지막 날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4일 평양식물원에서 한라산 백록담 흙과 백두산 천지 흙을 나누어(반송)에 뿌리며 식수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서해갑문 방명록에 “인민은 위대하다”

귀경길 개성공단 찾아 근로자 격려도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다목적 방조제인 남포 서해갑문,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을 잇따라 방문했다.

노 대통령 내외는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전 8시에 출발, 50분간 평양~남포 구간 고속도로인 청년고속도로를 달려 오전 8시50분에 남포시 상대두동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입구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공장 입구에서 양정만 평화자동차 지배인으로부터 공장 현황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20분 가량 평화자동차를

둘러본 뒤 양 지배인에게 “엔진도 만들고, 나중에 주변에 부품공장이 뿔뿔하게 들어서야죠”라며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차에 올라 오전 9시 45분께 남포 서해갑문 기념탑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도착 후 곧바로 기념탑 내 접견실로 이동, 서해갑문 건설 과정을 담은 비디오물을 시청하며 북측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적으로 정몽구 현대차, 구분부 LG, 최태원 SK, 현정은 현대그룹,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했다. /평양=공통취재단

노 대통령은 기념탑 전망대로 올라가 김일성 주석이 기념 촬영했던 장소에서 큰 여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노 대통령은 서해갑문 방명록에 “인민은 위대하다”라고 썼다.

노 대통령은 귀경길에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을 찾아 경협 성과를 목도하고 공단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북측 출입사주(CIQ)를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노 대통령은 남측 CIQ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국인 방북 결과 보고를 했다.

앞서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환송 오찬을 마친 직후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정상회담 개최 기념으로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행사를 가졌다. /평양=공통취재단

산행안내

- 10월 6일(토)
▲팔성산악회 서포터즈 10월 6일(토) 06시 30분
▲다들미(사)오산오수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 ▲팔성산악회
▲다들미(사)오산오수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 ▲고고대산악회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광주신가족

- ▲팔성산악회
▲다들미(사)오산오수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남평산악회

전통 침·뜸 공개강좌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중국 추나침구사·피부 미용사·안마사 자격취득
광주분원 공개강좌 및 설명회
일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위치: 광주시 동구 학동 649-45번지 3층

당뇨병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기적의 물질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안내서 신청 문의
070-7012-0246
H.P. 017-291-3115
www.cjyc.co.kr